

시론

대학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의 고민



주정민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역과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 문제에 직면했다. 일본은 2000년 초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과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이 위기를 맞았다.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래서 2006년 관련 법을 개정해 대학의 역할로 '교육', '연구'와 함께 '사회공헌'을 명시했다. 일본대학이 사회공헌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지자체와 함께하는 도시 재생사업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삶의 여건과 정주 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2013년 문부과학성은 이 사업을 COC(Center of Community)라는 명칭을 붙여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대학에 재정을 지원했고, 대학은 관련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생을 교육하고, 별도의 추진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운영했다. COC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확인한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COC+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COC 사업을 확장해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기관도 지역의 복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으로 넓혔다. 2020년부터는 COC+를 보완해 COC+R 사업을 하고 있다. COC+ 사업을 확대해 청년층의 지역취업과 정착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은 학업과 취업이 일체가 되는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이를 돕는 구조다. 우리 정부도 지역 활성화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와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어려웠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형태여서 시행착오가 많았다. 정부는 RIS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등이 지역 발전 과제를 제시하면,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인 약 2조원을 지원한다. 특이한 점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대학이 아닌 지

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한다. 일본의 COC 사업과 우리의 RISE 사업의 공통점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일본은 대학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비해 우리는 지자체가 주도한다. 지자체와 대학 등이 협업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다. 그러나 지역대학은 지자체에 대학이 중속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프로그램은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RIS, LINK 3.0, LiFE 등 5개 사업의 예산을 통합해 지원한다.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충분한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COC 사업, 우리의 RISE 사업은 지역발전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만 지역과 지역 간의 차이,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고려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장칼럼

진도 꽃게어업, 기후변화 미래를 대비하다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꽃게는 저열량 고단백 해산물로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이 300-1천mg으로 1일 권장량(300-500mg)을 충족시킬 만큼 풍부하게 함유되어 두뇌 발달, 지체 예방 등 뇌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 또한 엽산과 철분이 풍부해 노인이나 회복기 환자를 비롯해 임신부와 빈혈 증상이 있는 사람이 섭취하면 좋다. 이 밖에 간 보호 및 해독, 심혈관 건강, 피부미용, 노화 방지, 체중 감량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지니고 있어 전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로 '바다의 보약'이라 불린다. 기후 위기는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 증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분포, 서식지, 생존율 등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환경 및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은 25.6℃로 평년 23.7℃보다 1.9℃ 높아졌다. 또한 열대야 일수가 20.2일로 평년 6.5일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바다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

는 지구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한반도 인근 평균 수온은 23.9℃로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여름의 경우 고수온 특보 기간이 71일간 이어져 전년(57일)보다 더 길었으며 2017년 고수온 특보 체계가 갖춰진 이후 가장 길었다. 꽃게는 우리나라의 서남해 연안에 서식하며 여름은 모래밭 속에 숨어 지내다 밤에 먹이활동을 하는 야행성 생물로 어미 꽃게가 활발히 활동하는 수온은 20℃ 안팎이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는 꽃게의 생태와 어업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서해안은 장기화된 고수온과 함께 저층냉수 유입의 감소로 꽃게 어장이 넓게 확산되면서 조업 효율이 저하됐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획량 감소를 초래했다. 인천 옹진군 연평해역의 경우 평년보다 2-3℃ 높은 수온으로 올해 11월까지의 꽃게 어획량은 작년 동기 대비 47.1% 감소한 93t으로 최근 5년 사이(평균 1천334t) 최저치를 기록했다. 진도 해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월에 평년보다 3-4℃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획량은 전년(73t) 대비 약 38.8% 감소한 45t에 그쳤다. 하지만 10-11월에 수온이 차츰 하강함에 따라 수율이 높고 상품성이 우수한 꽃게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을 어기(9-11월)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09t, 어획 금액도 45% 증가한 45억원

을 기록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어획량은 854t으로 전년 835t 대비 2.2% 증가했다. 진도 해역은 기후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꽃게 조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원 관리만이 해법이다. 꽃게 개체수 증가 및 어획량 증감을 위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대량 생산한 어린 치어 약 315만마리, 진도군·진도군수협 등 유관기관에서도 매일 방류 사업을 통해 230만마리를 방류했다. 이를 통해 진도 해역에서 연간 1천여, 200여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대 크게 기여했고 어업인 소득 향상으로도 이어져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린 꽃게 방류 등 자원 관리가 뒷받침돼야 하며 연구기관,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인공종자 생산·방류를 통해 개체수를 늘리고 효율적인 어획 관리를 위한 환경 개선, 정책적 지원 등 적절한 대응이 동반된다면 지속 가능한 꽃게 어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꽃게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면 바다의 보약인 꽃게는 앞으로도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독자투고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부르는 참사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국처사(國處士)라고 불렀다. 이리하여 위로는 공경대부와 신신들로부터 남의 집 머슴이나 나무꾼, 오랑캐나 외국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향긋한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그를 흠모했다.” 이는 고려 고종 때 임춘이 지은 가전 국순전의 내용 중 일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술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술 문화의 지속성은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동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때가 왔다. 12월은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운전자들조차 “한잔은 괜찮겠지” 또는 “바로 앞인데 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순간의 방심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부족과 더불어 ‘술을 입에 대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 안 된다’는 의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술은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술을 통해 관계가 돈독해지고 몰랐던 점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친 음주는 이성을 잃게 하고 본래의 목적을 잃게 만드는 ‘목적 전치’를 일으킬 수 있다. 나이가

증수운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타인의 삶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를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굳건한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이러한 법적 제재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타인과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한다면, 술의 긍정적인 역할만을 살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수연·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한전 나주시대 10년,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짙어

서울 삼성동에서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한지 10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천문학적 재정 적자에 휘청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모시기에 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지자체 공동의 혁신도시가 조성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전한 공기업 대표 주자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16개 기관 7천500여명 중 30%에 가까운 2천여명이 근무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조 239억원의 지역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매년 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1천511명을 선발했다. 나주시 세수는 2014년 440억원에서 올해 1천192억원으로 762억원 늘었다.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수도'를 지향해 혁신도시 인근 4개 권역에 걸친 밸리를 조성, 337개 기업을 유치하고 3천600여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했다. 반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웠다. 한전의 연결 총부채만 2조 9천900억원(지난 6월 말 기준)에 달한다. 하루에 122억원씩 매 분기별로 1조원 이상, 작년 한 해만 4조 4천500억원을 이자로 지급

했다. 최근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갔으나 국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돼 당분간 적자해소가 당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임주 당시 지역민들은 빛가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도시이자 세계 속의 에너지밸리로 자리잡도록 앞장서기를 기원했다. 한전도 전력산업 116년 역사를 넘어 나주에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Smart Energy Creator, KEPCO'의 신비전을 선포,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퇴직하는 직원의 수만금 신규 채용 인원을 못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부끄러 현실이다. 전기요금을 지속 인상해왔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돼 역마진 구조 해소에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재무 구조 개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주로 옮겨온지 10주년이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생태계 혁신의 선구자'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에너지 신기술과 신사업이 주도할 대전환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외출장 온갖 부정행위 광주·전남 지방의회 꼴불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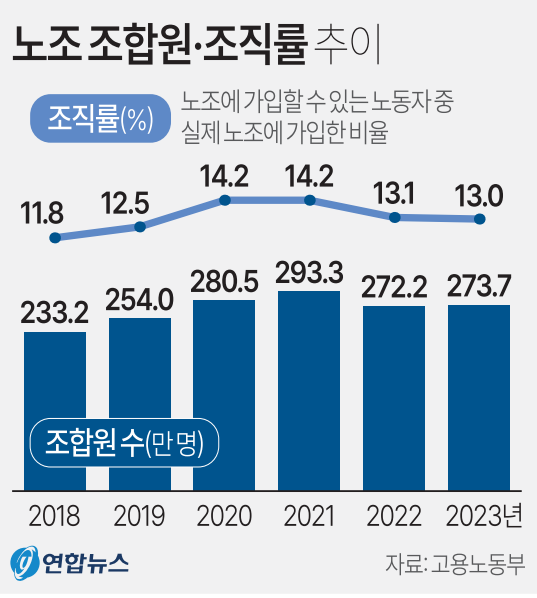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광주·전남 지방의회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조작, 주류 및 도박 물품 구입, 직원 여비 대납 등 다양한 위법 실태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위유성 논란이 술하게 제기됐다. 출장비 부풀리기에 유용까지 도를 넘어서는 지경이다. 이른바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 셀프 심의함으로써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혁신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이유로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구태 관행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사고도 시대 정신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광주시의회의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 간 8건의 출장 가운데 2건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300만원 가량을 더 지출했다고 한다. 같은 수법으로 광산구의회의 3건 중 3건 1천만원, 동구의회의 3건 중 2건 400여만원, 서구의회의 2건 중 2건 1천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서구의회에서 직원 여비 40만원을 대납했고, 동구의회의 체재비 280만원

을 초과 지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도의회의 15건의 국외출장 가운데 10건에서 항공권을 조작해 1억3천만원을 더 타냈다. 게다가 예산으로 주류와 간식에 화투 등 도박 물품까지 구매했다. 시·군의회의 47건 중 28건에서 2억2천300만원이 항공권 위·변조로 과다 지급됐다. 직원비용 대납 6건 1천100만원, 체재비 초과 18건 2천640만원도 드러났다. 위유성 출장이 부지기수라는 지적에 눈감은 지방의회의 꼴불견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의원들이 썩지듯 마냥 부당하게 쟁건 차액에 대해서 우선 환수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수사도 의뢰하면서 효과적인 근절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장심사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의원들의 자질, 능력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전문성은 고사하고 잊혀질 만하면 도덕과 품위를 저버리는 일들이 잇따른다. 지방의원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주민들은 일하라고 뽑은 의원들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픽 뉴스

작년 노조 조합원 273만7천명·조직률 13%...제1노조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작년 말 기준 273만7천명으로 전년(272만2천명)보다 1만5천명 늘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보다 소폭(0.1%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조합원 증가에도 조직률이 하락한 이유는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천103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 많아졌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재작년 13년 만에 감소한 뒤 작년 다시 늘었다. 노조 조직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나누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6만명(2천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8만6천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이 47만9천명(3천458개 노조)으로 그다 음으로 많았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